

2024년 4월 시청자평가원 활동실적

방송사명(법인명) : 주식회사 연합뉴스티브이

1. 회의 개최

○ 일시 및 참석인원

일시	참석인원		
	시청자평가원	시청자위원회	방송사측
-	-	-	-

2. 시청자평가프로그램 운영 실적

프로그램명	편성시간	편성시간 변경
바로보는TV 옴부즈맨	본방송 매주 일요일 03:40~04:10 (재방송 매주 월 00:20~00:50)	해당사항 없음

○ 방송현황

※ 프로그램 제목과 평가원 진술 주제를 3줄 이내로 기술

평가원명	방송일	방송 주요 내용	비고
임윤주	4/7	[뉴스21] 유권자도 '선거법' 주의보...벽보·현수막·인증샷 '조심' [일요와이드] "우리 지역 후보도 아닌데"...선거문자 무분별 발송	
김홍태	4/14	[선택, 우리의 내일] 민주 승리, 국민의힘 참패...또 압도적 여소야대 [뉴스프라임] "놀 권리 보장해주세요"...초등생들이 지역구 후보들에 이색 제안	
안지연	4/21	[뉴스센터13] 쿠팡 멤버십 58% 인상...OTT 구독료 줄줄이 오르나 [뉴스센터12] 언론중재위 "자살보도 제목에 '극단적 선택' 쓰면 시정권고"	

박세진	4/28	[뉴스포커스] 북, 초대형방사포로 핵반격훈련..."전술핵 운용 확장" [뉴스리뷰]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발 발사...한미훈련에 반발
-----	------	--

3. 시청자평가원 변동사항 '변동사항 없음'

구분	성명	전·현직	평가원 선임일	비고 (변경사유 등)
활동	김홍태	대한변호사협회 상임이사/ 변호사	2018. 06. 28	-
활동	임윤주	이화여대커뮤니케이션 미디어 연구소 연구원	2021. 11. 28	-
활동	안지연	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 총무이사	2023. 01. 31	-
활동	박세진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 정보사회미디어학과 조교수	2023. 05. 31	-

붙임 : 1. 평가원 진술 및 답변내용 1부.

2. 시청자평가원 방송원고 1부.

[붙임1]

<평가원 진술 및 방송사측 답변 내용>

방송일시	평가원명	평가원 진술내용	답변내용
2024 4/7(일)	임윤주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기간과 관련하여 보도한 <출발600>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이슈 역시 선거 때마다 등장하나,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한 이슈로 다시 한번 공론화하는 계기를 마련한 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많은 선거 결과가 이른바 잠깐이 기간에 뒤집히기도 했는데요. 때문에 유권자와 실제 당사자인 정치권 뿐 아니라 학계 역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으로, 실질적으로 유권자가 어떤 방향이 도움이 될	주신 의견 감사하게 생각하고 공감합니다. 선관위도 관련 제도 폐지 개정 의견을 냈지만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사안입니다.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 있을지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본 보도에서는 비판적인 측면을 주요하게 다루어 중요한 문제 제기를 이루어 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 등이 공표 금지 기간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조항이 생겨난 배경과 이유, 그리고 현재의 선거 상황을 따져보고 실제 유권자인 시청자들 역시 해당 이슈에 대한 의견을 정리할 수 있다면, 보다 더 진전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2024 4/14(일)	김홍태	지난 주 8일 뉴스프라임에서는, 선거 이틀 전 투표권이 없는 인천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놀 권리를 보장해달라"며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직접 정책을 제안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서흥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제안을 한 것은 어린이들의 사회 참여 의식을 높이고 이를 통해 민주주의를 깨닫게 하는데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이를 통해 어른들도 어린이들도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하고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능동적인 시민임을 깨닫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어린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점을 짚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학교 기반의 사회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어린이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이해하고, 민주주의 원리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만들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할 부분이었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사회의 책임감 있는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와 문화 조성은 어른들이 해야 할 몫이기 때문입니다.	초등학생을 비롯한 10대 청소년들이 SNS 통해 활발히 의견 개진을 하고 있고 특히 선거 등 민주주의 제도, 교육 문제 등에 대한 관심을 갖는 사항이 특이한 사례로 자리 잡고, 집단적 의견으로 제기될 때는 언론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프로그램은 아니어도 리포트(인터뷰) 등 여럿 포맷을 통해 사회부 교육 담당 기자 또는 사건 기자들이 관련 내용에 관심을 가지도록 요청하겠습니다.
2024 4/21(일)	안지연	13일 오후 1시 보도에서는 쿠팡의 유료 멤버십 월 요금의 기존 대비 58% 인상 계획	쿠팡의 유료 멤버십 월 요금 인상은 쿠팡 플레이

		을 전했습니다. 쿠팡은 멤버십 서비스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인 쿠팡 플레이와 연결되어 있어 요금 인상이 쿠팡 플레이 시청자들에게도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도는 CJ ENM의 OTT 플랫폼인 티빙이 다음 달부터 KBO 프로야구 중계를 유료로 전환한다는 내용도 함께 전했는데, 이를 둘러싼 중계 품질 및 고령층 등의 접근성에 대한 부정적 반응도 덧붙였습니다. 한 시민은 여러 군데에서 다 볼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며 유료화 반대의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장바구니 물가와 함께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구독료 인상 폭이 넓어져 소비자들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보도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 가격 인상을 바라보는 사업자와 소비자의 시각을 다뤄 시청자들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보도를 통해 티빙의 프로야구 온라인 중계 유료 전환에 대한 내용과 시청의 어려움 등을 토로하는 시민의 의견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티빙의 유료 중계 발표 이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스포츠에 대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는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교환되었는데, 이러한 점에서 이 보도는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지속적 논의의 필요성을 재점화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OTT 시청자에 부담이 되고, 티빙의 프로야구 유료 중계로 전환 또한 위원님의 지적처럼 보편적 시청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이들의 업적의 인상 현황과 문제점, 특히 고령층 접근성 문제 등을 다뤘습니다. 최근 장바구니 물가 상승과 관련해 편법적인 업체들의 인상 시도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4 4/28(일)	박세진	연합뉴스TV는 지난 23일 저녁, 러시아의 군사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했다고 단독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방사포 도발과 러시아 대표단의 방북이 연계되어 있다는 분석도 함께 전했는데, 관련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이 600mm 초대형 방사포를 쏜 22일, 군 당국자로 추정되는 러시아 대표단이 북한을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밀착은 우리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연	주신 의견 감사합니다. 해당 기사는 연합뉴스TV가 단독으로 취재해 보도한 사안입니다. 통상 북한의 도발은 대미, 대남 압박용이란 해석이 많이 붙는데, 이 사안은 러시아 방북단 방문과 맞물려 대러시아 무기 판매용 가능성을 터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말씀 주신대로 보도 과정에서 시청자의 이해를 돕도록 좀 더 세심한 배려가

	<p>합뉴스TV가 단독보도를 통해 이번 북한의 도발과 북러간 연대 가능성을 연계해 보도함으로써 시청자들이 해당 이슈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고 평가됩니다. 다만 북한의 도발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방사포와 탄도 미사일을 번갈아 가며 사용해 시청자들 입장에서 다소 혼란스러웠다고 생각됩니다. 비록 보도 중간에 우리 합참이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를 탄도미사일로 부른다는 설명을 했지만 미사일과 방사포의 차이점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시청자들의 경우 다르게 해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청자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의 사용을 통일했다면 더 좋은 보도가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p>	<p>있었으면 아쉬움이 듭니다. 주신 의견 반영해 차후 보도에는 좀 더 완결된 리포트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p>
--	--	---

[붙임2]

<시청자평가원 방송원고>

● **임윤주 시청자평가원(24. 04. 07.방송) : <바로보는 TV 음부즈맨 645회 - ‘연합 뉴스TV를 말한다’>**

한 주간 보도 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임윤주입니다.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우리 지역의 후보자를 신중히 고르는 일만큼 신경 써야 할 부분으로, 유권자가 지켜야 할 선거법이 있습니다. 관련하여 보도한 <뉴스21> 살펴보겠습니다.

보도는, 한 지역의 후보 선거 벽보가 훼손된 사례를 보여주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후보의 얼굴 사진을 라이터로 훼손했고, 후보 캠프 측은 곧바로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처럼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를 찢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 다른 지역에서는 특정 후보의 선거 현수막의 고정끈이 절단된 채 발견돼 경찰에 신고되기도 했습니다. 선전 시설뿐 아니라 이를 고정하는 테이프나 끈을 훼손해도 처벌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투표 당일 인증 사진도 주의해야 합니다. 투표소 안에서는 인증 사진을 촬영할 수 없고 특히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총선부터는 유권자도 규격의 제한은 있지만 소품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 당일에는 인터넷 전자우편이나 문자 메시지,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량으로 단체 문자를 보내거나 전문 업체를 통해 문자를 전송하는 건 불법입니다. 또 후보자나 그 가족 등에 대해 사실을 적시해 비방하거나 SNS 등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으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선거 전 유권자가 지켜야 할 주의사항에 대한 환기는 반드시 필요한 보도라고 생각합니다. 투표소 인증샷과 관련된 주의사항과 같이, 이제는 널리 알려진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선거 때 마다 반복적으로 관련 사건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유권자 주의사항은 여러 번 반복하여 보도해도 좋을 만큼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할 수 있는 자료화면도 적절하게 제시되어 정보 습득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보도에서 언급하였듯, 이번 선거부터는 유권자가 스스로 만든 소품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된 만큼 새로운 주의사항도 추가되었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부분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덧붙여줬다면 좋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일부 선거운동 현장에서 일반 유권자의 복장이나 소품 규격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품을 활용할 경우의 기준이나 개별적으로 대인 선거운동을 할 경우의 기준에 대해 설명하거나 자료화면으로 제공되었다면 더욱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후보자들로부터 선거 유세 문자나 전화 많이 받고 계실텐데요. 관련하여 보도한 <일요와이드> 살펴보겠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유권자들은 거주 지역 후보자 뿐 아니라 자신이 살지도 않은 지역의 후보자들까지 선거 유세 연락이 잦아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직접 인터뷰에 응한 시민들은 ‘번호를 어떻게 알고 문자를 보냈는지 불쾌하다’, ‘무분별하게 개인정보가 돌아다니는 것 같아서 불편한 점이 있다’는 등의 의견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지역과 무관하게 유세 전화와 문자가 쏟아지는 이유에 대해서 기자가 선거 사무소에 문의하기도 하였는데요. 대부분 애매하게 설명하거나 잘 모르겠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한 선거 사무실은 인터넷에서 상품 구입 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했던 사람들의 정보를 수집한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유권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하거나 출처를 제대로 밝히지 못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행정처분 제재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법 위반으로 105건의 행정 처분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유권자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했는지 입증하기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현행 선거법엔 유권자들의 전화번호 입수경로 등에 대해선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서 인용된 시민들의 인터뷰 의견을 살펴보면, 불편하다는 감정을 호소했지만, 사실상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민감한 문제가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본 보도는 단순히 유권자들이 겪고 있는 감정적 불편함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중요한 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보도는, 유권자들의 전화번호 입수경로 규정의 미흡함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직접 여러 선거 사무소에 전화하여, 담당자가 입수 경로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법 위반으로 행정 처분이 내려진 건수를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최근 선거의 문제가 아닌 선거철 마다 반복되는 것으로, 단순히 시민들의 불편 사항에 대한 전달이 아닌 법적인 문제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보도에 인용되었던 사무소의 답변처럼, 출처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답변할 경우에는 잘못된 고지로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지난 선거의 행정 처분은 효과가 있었던 것인지, 현행 선거법의 미흡함은 어떤 부분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면 좋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기간과 관련하여 보도한 <출발600> 살펴보겠습니다.

보도는, 선거 옛새 전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음을 설명하였는데요. 지난 4월 3일까지 실시된 여론조사는 남은 선거 기간 동안에 알릴 수 있지만, 4일부터 이루어진 조사는 선거날 저녁 6시, 투표가 끝날 때까지 공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는 이른바 '깜깜이, 블랙아웃 기간'이라고도 표현되는데, 선거 막판 부정확한 여론조사가 무더기로 발표되면 유권자들의 판단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공표 금지 기간이 오히려 유권자들에게 불편을 야기한다는 비판도 거셉니다. 선거 일주일 전부터 투표할 후보를 적극적으로 결정하는 유권자들이 있는데, 주요 판단 근거가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오히려 막판 과열 양상 속에 음성화된 여론조사 결과 등이 유통돼 부작용이 더 크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이나 독일, 일본은 선거 전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 없고, 공표 금지 기간을 뒀던 캐나다나 프랑스, 헝가리 등도 이 기간을 없애거나 짧게 바뀌는 추세입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월 관련 조항 폐지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제대로 논의되지 못해 폐기 수순입니다.

해당 이슈 역시 선거 때마다 등장하나,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한 이슈로 다시 한번 공론화하는 계기를 마련한 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많은 선거 결과가 이른바 깜깜이 기간에 뒤집히기도 했는데요. 때문에 유권자와 실제 당사자인 정치권 뿐 아니라 학계 역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으로, 실질적으로 유권자가 어떤 방향이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본 보도에서는 비판적인 측면을 주요하게 다루어 중요한 문제 제기를 이루어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 등이 공표 금지 기간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조항이 생겨낸 배경과 이유, 그리고

현재의 선거 상황을 따져보고 실제 유권자인 시청자들 역시 해당 이슈에 대한 의견을 정리할 수 있다면, 보다 더 진전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강 지표에 대해 보도한 <뉴스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이 전국 중·고등학생 6만 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청소년 음주율은 남학생 13%, 여학생 9%입니다. 최근 30일 동안 술을 마신 적이 있냐는 질문에는, 10명 중 1명 꼴로 음주를 했다고 답했습니다. 전년대비 각각 약 2%p 가량 개선된 수치입니다.

하지만 과음을 하는 '위험음주율'은 증가했는데요, 남학생 음주자 중 41.3%는 한 번 술을 마실 때 소주 5잔 이상을 마신다고 답했습니다. 여학생 음주자의 경우 절반이 넘는 50.1%가 평균 소주 3잔 이상을 마셨습니다. 남·여학생 모두 지난해보다 늘었는데, 특히 중학생이 큰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다만, 학생들의 전반적인 신체활동과 정신건강 지표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루 60분 주 5일 이상 신체활동을 한 학생의 비율이 전년 대비 늘었으며 이 중 주 3일 이상 고강도 운동을 하는 비율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우울감을 경험한 청소년의 비율은 전년 대비 줄었습니다. 스트레스 인지율도 남·여 모두 감소했습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이후 온전한 일상을 회복하면서 정신 건강 등 각종 지표가 개선됐다고 풀이했습니다.

매우 적절하게 제공된 보도였습니다. '위험음주율'과 같은 용어에 대한 설명도 자료 화면에 제공되었고, 소주 5잔 등 일반 시청자가 이해하기 쉬운 기준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정보에 대한 자료 출처 역시 잘 제공되었는데요, 해당 결과는 보도 처음에 언급하였던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이 공동 발표한 지표 중 '청소년 건강행태 조사'만 인용한 것으로 해당 결과의 전체 자료집은 질병관리청에서만 확인할 수 있음을 명시해주었다면 정보 전달에 더욱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인 건강 개선에 대한 당국의 해석이 덧붙여졌는데요. 반면, 청소년 과음에 대해서는 헤드라인이나 보도 초반에 주요하게 언급했던 것에 비해, 관련 의견이 부재하여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TV 시청자 평가였습니다.

● 김홍태 시청자평가원(24. 04. 14.방송) : <바로보는 TV 음부즈맨 646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지난 주 연합뉴스TV는, 지난 10일 치러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개표결과 방송 소식과 국회의원 선거 이틀 전에 인천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놀 권리를 보장해달라"며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직접 정책을 제안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을 법적으로 금하는 제도가 시행된 후 신고가 5년 새 2배가 늘었다는 소식

과 일부 직구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반지와 귀걸이 등에서 기준치의 최대 700배에 달하는 발암물질이 나왔된다는 소식 그리고 허위 제보로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국가손해배상을 받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 내용을 전했습니다.

지난 주 첫 소식은 11일 새벽 4시 30분경 방송된 선택 우리의 내일 선거방송인데요, 22대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개표가 대부분 마무리될 새벽 22대 국회의원 선거는 20대와 21대에 이어 민주당의 3연승으로 끝났으며, 민주당이 단독 과반을 달성하는 것은 물론 범야권이 전체적으로 180석이 넘는 기록적 압승이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목표했던 단독 과반을 훌쩍 넘겨 결과는 민주당의 압승이이라며 민주연합의 비례의석까지 합쳐, 개헌을 제외하고 사실상 모든 법안 처리가 가능한 거대 야당의 막강한 입법 권력이 22대 국회에서도 이어지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역구와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를 합쳐 기대했던 120석을 넘지 못했는데요, 총선 3연패이자 개헌과 탄핵만 겨우 저지할 수 있는 궤멸적 참패를 4년 만에 또 당했으며, 창당 갓 한 달을 넘긴 조국혁신당은 비례대표로만 10석 넘게 가져가는 기업을 토했다고 전합니다.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구속 위기를 넘긴 이재명 대표는 당 장악은 물론, 대권가도에 탄력이 붙게 됐으며, 정치권에 '화려한 데뷔'를 한 조국 대표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급부상했다는데요, 반면 여권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구원 투수로 등판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정치적 미래가 어두워졌고, 개혁신당은 이준석 대표의 지역구 승리와 비례대표 의석을 얻었고, 새로운미래도 김종민 공동대표가 1석을 가져갔다고 전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6석을 차지했던 녹색정의당은 1석도 확보하지 못하며 원외 정당으로 전락했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10일 치러진 22대 국회의원 선거는 밤새워 실시간 결과가 전해졌는데요, 결과의 윤곽이 거의 잡힌 11일 새벽에 나름 짙막한 평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의 압승과 국민의힘의 부진 그리고 신생정당 조국혁신당의 급부상에 대한 내용과 이재명 당대표,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리고 조국 대표와 이준석 대표에 대한 역할과 미래에 대하여도 함께 평하였습니다. 새로운 정치 세력의 등장과 기존 정당의 변화는 향후 정치적 동향과 대한민국의 미래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기에 나름 짧지만 임팩트있는 현황분석이었는데요, 현정권에 대한 국민의 판단이라는 점과 이러한 변화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면서 정치적 다양성과 균형 있고 민주적인 사회 모습에 대한 기대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지난 주 8일 뉴스프라임에서는, 선거 이틀전 투표권이 없는 인천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놀 권리를 보장해달라"며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직접 정책을 제안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인천의 서흥초등학교 6학년 100여명은 "놀 권리를 보장해 달라"며 직접 만든 정책 제

안서를 인천 동·미추홀구갑 선거구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학생들은 저마다 커다란 종이를 들고 한데 모였는데요, 종이에 담긴 내용은 '폐업한 건물에 오락 시설을 만들어 달라', '가로등과 신호등을 늘려달라' 등의 정책 제안입니다.

아이들은 지난달부터 학교 주변으로 현장 학습을 다니며 지역에 필요한 부분을 토의하고 의견을 모았는데요, 교과서에서만 배우던 민주주의와 투표권에 대해 직접 체험하면서 아이들의 눈높이도 한층 높아졌다고 합니다.

학교 측은 투표권은 없지만 민주주의 원리를 직접 체험하면서 학생들 주도로 정책 제안까지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서흥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제안을 한 것은 어린이들의 사회 참여 의식을 높이고 이를 통해 민주주의를 깨닫게 하는데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이를 통해 어른들도 어린이들도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하고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능동적인 시민임을 깨닫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어린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점을 짚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학교 기반의 사회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어린이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이해하고, 민주주의 원리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만들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할 부분이었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사회의 책임감 있는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와 문화 조성은 어른들이 해야 할 몫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7일 일요와이드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제도가 시행된 후 정부는 관련 신고를 받았는데요, 신고가 꾸준히 늘어 지난해 1만 건을 넘었고, 정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 찾기에 나섰다

회사가 의무적으로 개입하도록 명시해 근로자 인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2019년 7월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가 시행됐는데요, 이후 고용노동부에 접수되는 신고는 꾸준히 늘고 있어, 2019년 7월부터 12월까지는 2,130건, 2020년 5,823건, 2021년 7,774건, 2022년 8,691건을 기록했으며, 작년에는 1만 28건이 접수됐다고 합니다.

도입 첫 해와 비교하면 5년 사이 2배 늘어난 수준이고, 하루 평균 27건 신고된 것으로, 지난해 신고 유형을 보면 폭언이 32%로 제일 많았고, 부당인사와 따돌림이 각각 13%, 10%로 뒤를 이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접수된 신고 중 187건이 과태료 처분으로, 153건만이 검찰로 송치돼 이 중 57건이 재판에 넘겨졌다는데요, 고용노동부는 시행 5년을 맞아 직장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건 처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 찾기에 나섰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가 시행된 후, 신고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해당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도 있지만, 많은 근로자들이 이로 인해 고통

받고 있다는 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직장 내에서의 인권 보호와 건강한 근무 환경 조성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는 점과 그로 인해 피해자가 겪을 수 있는 고통에 대해 부각해야 하며,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개인적, 조직적 노력도 강조할 부분입니다.

신고 건수에 비해서 과태료 처분이나 검찰 송치 후 재판에 넘겨진 사례가 상대적으로 적은 숫자이긴 하지만, 이는 보도한 대로 아직 판단 기준이 명확화되지 않았고 사건 처리의 전문성이 높여야 한다는 면으로 이해되며, 고용노동부가 이를 위한 방법 찾기에 나섰다고 전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교육과 인식의 개선,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신고 접수 후 처리 과정의 투명성과 신속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한 점으로 짚을 부분이었습니다.

지난 7일 뉴스17에서는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파는 반지와 귀걸이 등에서 기준치의 최대 700배에 달하는 발암물질이 나와 주의가 요망된다고 전했는데요, 세관이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분석한 결과라고 했습니다.

인천세관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판매하는 장신구 404개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24%인 96개 제품에서 기준치 초과 발암물질이 나왔다고 밝혔는데요, 모두 배송비 포함 평균 2천원 상당의 초저가 제품으로, 최소 10배에서 최대 700배에 달하는 카드뮴과 납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당국은 이에 관련 제품의 통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알리익스프레스 제품은 10개 중 3개 꼴, 테무 제품은 10개 중 2개 꼴로 초과 검출됐는데요, 카드뮴과 납은 국제암연구소에서 지정한 '인체발암 가능 물질'로, 이른바 '이타이타이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카드뮴은 호흡곤란이나 간기능 장애 등 증상을 일으키는 1군 발암물질이고, 납 역시 신장계와 중추신경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중금속이라고 합니다.

세관당국은 해당 플랫폼에 발암물질이 검출된 제품에 대한 판매 중단을 요청할 계획으로, 초저가 장신구 구매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마무리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판매되는 장신구 등에서 발암물질인 카드뮴과 납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된 것은, 소비자들이 해외직구 시장에서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판매처의 신뢰성과 제품의 안전성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직구 시에는 해당 국가의 제품 안전 기준과 국내 기준 간의 차이도 살펴야 한다는 것을 짚으면 좋겠습니다.

보도는 유아들이 사용하는 제품을 선택할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점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격이 착해도 안전성에 대한 엄격한 대비가 특히 필요한 부분으로 소비자

스스로도 안전한 소비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문제 상품에 대한 정보 공유와 신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를 강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가격만을 고려한 구매 결정이 잘못하면 건강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정부와 관련기관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안전 기준을 바탕으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에 서울시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꼭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지난 8일 뉴스20에서는 허위 제보로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국가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A씨는 자신에게 사기죄로 고소당한 B씨의 제보로 송유관에서 기름을 훔치려다 실패했다는 혐의로 2015년 9월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고, 검찰은 B씨의 허위제보 가능성이 높으며 A씨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경찰이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나 자료를 누락하거나 조작하는 등 위법행위가 없는 한 경찰의 수사나 판단, 처분 등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인 A씨는 특수절도미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뒤 구속영장이 발부돼 약 한 달간 수감 생활을 하다 무혐의 처분되어 석방됐는데요, 이에 대해 피해자는 자신을 조사했던 경찰관들과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자신을 부당하게 구속하고 가족 접견도 금지했으므로 배상을 하라는 이유였는데요,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2심 법원은 경찰관들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고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수사기관 행위를 위법하다고 보지 않았는데요, 피해자가 범행에 가담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여지가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허위 제보 등으로 불이익을 경험한 개인이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기에는 법적 장벽이 높음을 나타내는데요, 판결내용대로 이는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증거의 누락, 조작과 같은 명백한 위법 행위가 없는 한, 수사 기관의 판단이나 처분을 위법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구속되어 한달이나 수감생활을 하고 가족접견도 금지된 부분에 대하여는 국가배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해자를 위자해 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논의될 필요는 있어 보였습니다.

● **안지연 시청자평가원(24. 04. 21.방송) : <바로보는 TV 음부즈맨 647회 - '연합 뉴스TV를 말한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OTT 구독료 인상에 정부는 구독료 인하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스트림플레이션으로 소비자들의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으나 4·10 총선 직후 쿠팡이 멤버십 서비스 인상을 발표해 경쟁사들의 가격 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깊어지고 있는데요, 13일 오후 1시 뉴스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다뤘습니

다.

보도에서는 쿠팡의 유료 멤버십 월 요금의 기존 대비 58% 인상 계획을 전했습니다. 쿠팡은 멤버십 서비스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인 쿠팡플레이와 연결되어 있어 요금 인상이 쿠팡플레이 시청자들에게도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주요 OTT 멤버십에 비해 저렴한 요금이며 다방면에서 무료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가성비 측면에서 압도적이라는 쿠팡 측의 주장을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한 시민은 가격 부담이 덜 해 몇 개 콘텐츠만이라도 보려고 가입했는데 한 번에 58% 인상은 크게 느껴진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한편, 보도는 CJ ENM의 OTT플랫폼인 티빙이 다음 달부터 KBO 프로야구 중계를 유료로 전환한다는 내용도 함께 전했는데, 이를 둘러싼 중계 품질 및 고령층 등의 접근성에 대한 부정적 반응도 덧붙였습니다.

한 시민은 여러 군데에서 다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며 유료화 반대의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장바구니 물가와 함께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구독료 인상 폭이 넓어져 소비자들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보도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 가격 인상을 바라보는 사업자와 소비자의 시각을 다뤄 시청자들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보도를 통해 티빙의 프로야구 온라인 중계 유료 전환에 대한 내용과 시청의 어려움 등을 토로하는 시민의 의견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티빙의 유료 중계 발표 이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스포츠에 대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는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교환되었는데, 이러한 점에서 이 보도는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지속적 논의의 필요성을 재점화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자살사건을 보도할 때 자살이라는 표현의 대안으로 극단적 선택이 사용된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오히려 자살이 능동적 선택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어 언론중재위원회는 이에 대한 시정이 권고된다고 밝혔습니다. 15일 오후 12시 뉴스의 보도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자살사건 보도 제목에 극단적 선택 표현이 사용되면 시정이 권고된다고 전했습니다. 자살이 사망자의 능동적 선택이라는 오인 유발의 가능성과 모방 자살의 위험이 있어 이와 같은 사건을 보도할 경우 사망이나 숨지다와 같은 객관적 표현 사용이 적절하다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자살과 관련해 사망자 및 유족의 신상, 자살 장소와 방법 등을 상세히 묘사하는 보도 등에 시정 권고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로 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매우 필요한 상황입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자살보도와 관련하여 권고 기준과 윤리강령 등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살 보도와 관련해 국내 언론에서는 자극적이고 과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향이 보입니다.

보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이제는 사회적 책임이 따르는 자살에 대한 내용을 보도할 때 보도 지침을 준수하는 언론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때입니다. 따라서 이 보도는 자극적인 보도는 지양하고 객관적인 시선에서 사건을 바라봐야한다는 문제 의식을 제기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도 말미에 언급한 자살 관련 심의 규정 위반 사례에 대한 신고 건수, 기사 유형 등에 대한 통계지표와 전문가의 견해 등이 덧붙여 졌다면 관련 보도에 대한 심각성과 자살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 변화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6일은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관련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을 다루는 내용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는 때입니다. 16일 뉴스프라임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다뤘습니다.

보도는 세월호 참사 이후 교육과정을 통해 안전교과 및 단원이 신설되는 등 개정된 교육과정에서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이 유지되었고 이론 교육 외에 생존 수영 교육도 시작되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초등학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교육에 지난해 전체 학생 중 약 80% 이상인 216만 명이 참여했지만 이러한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인프라 부족에 대한 교육 현장의 목소리도 덧붙였습니다.

지역별 수영장 인프라의 차이, 학교별 일정 조율의 어려움, 수영장 섭외 및 인솔 등의 과정이 모두 교사의 책임으로 이어져 생존수영 의무화는 긍정적이지만 업무 부담이 크다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교육부도 이와 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교육 내실화를 위한 시설 확충 계획을 밝혀 학교 안전교육에 대한 지속적 관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비롯해 이태원 참사, 오송지하차도 침수 사고,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고 등 우리 사회에서 안전 관련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안전 의식을 제고하고 유사 사고 발생 시 대처 능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이 보도는 교육 현장에서 이를 위한 제도와 교육과정을 마련해 안전 교육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내용을 전해 그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교육 현장에서 이를 바라보는 긍정적 시각을 함께 전해주어 이러한 교육의 필요성을 부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교육을 경험한 학생들과 학부모의 의견을 알 수 없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추후 관련 보도를 할 때에는 학교 현장 교사 및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덧붙여 안전교육의 효과, 필요성 등이 더욱 강조되길 바랍니다.

처음 방문하는 장소에 갈 때 지도 앱의 도움을 받는데, 최단 거리와 최단시간 등에 대한 정보를 편리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앱은 몸이 불편하지 않은 사람들을 기준으로 제작되어 교통 약자들의 이용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존재했습니다. 서울시는 교통약자를 위한 모바일 앱을 출시했는데요, 지난 16일 뉴스 투나잇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다뤘습니다.

보도에서는 서울시의 교통약자를 위한 모바일 앱 출시와 관련된 내용을 전했습니다. 장애인이나 유모차를 사용하는 시민 등 교통약자들이 다니기 쉬운 길을 안내하고 대중 교통 이용을 위한 정보가 함께 제공되는 '서울동행맵'이 출시된다는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도상 턱이 높거나 경사가 심한 곳, 계단 등을 표시하고 이 구간을 지나지 않는 경로와 저상버스 승하차 예약, 가까운 지하철역의 번호를 볼 수 있는 기능 등이 담겨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보제공이 도움이 되지만 곳곳에 위치한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휠체어 이용자들이 혼자서도 다치는 일이 없게 다닐 수 있다는 한 시민의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보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길 안내 앱은 빠르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경로에 계단 등이 있는 길을 안내합니다. 누군가에게는 편리하게 이용되는 서비스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불편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편에 대처하기 위해 여러 플랫폼에서 개별적으로 교통약자를 위한 서비스를 선보였지만 통합 서비스를 제공받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 보도는 서울시를 시작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교통약자를 위한 통합 서비스 제공의 가능성을 확인해주었고 우리 사회에서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가 확산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심각한 사회 문제에 놓여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목소리와 정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쉽게 완화되지 않아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더욱이 1인 가구도 점점 증가하고 있어 단 시간에 해결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이는데요, 지난 17일 오후 1시 뉴스의 보도 살펴보겠습니다.

보도는 여성가족부의 가족실태조사 시행 결과를 인용해 저출산과 1인가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1인 가구가 33.6%로 2015년과 2020년 조사 보다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나 자녀계획이 있다고 답한 30대는 27.6%, 30세 미만은 15.7%로 2020년 조사 보다 올랐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독신으로 사는 것에는 47.4%, 결혼하지 않고 남녀가 함께 사는 것에는 39.1%가 동의한다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출산과 결혼 등은 여러 문제들과 연결되어 있어 우리 사회의 다양한 측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보도에서는 1인 가구와 독신에 대한 긍정적 시각의 증가, 자녀 계획 등에 대한 통계 결과를 전해 결혼과 출산에 대한 2030 세대의 인식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아쉬운 점도 있었는데요, 이 보도는 단순히 분석 결과만을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통계 결과를 바탕으로 원인을 파악해 우리 사회에서 어떤 부분을 들여다보

야 하는지에 대한 제시가 가능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함께 송출된 영상이 보도 내용을 제대로 뒷받침 해주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식사 및 집안일 등을 잘하는 1인 가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상에서는 라면을 끓여 먹는 장면, 배달 음식을 먹는 장면, 작아 보이는 방 등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를 통해 1인 가구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도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송출되는 것인 만큼 영상 제작 시에는 이러한 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 박세진 시청자평가원(24. 04. 28.방송) : <바로보는 TV 음부즈맨 648회 - '연합 뉴스TV를 말한다'>

한주간 보도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TV를 말한다 박세진입니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전략순항미사일과 신형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한지 사흘만인 지난 22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올해 들어 4번째 탄도미사일 도발로 북한은 이번 발사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핵반격가상전술훈련'의 일환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의 관련 보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TV는 합동참모본부의 발표를 인용해 북한이 지난 22일 오후,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이번에 발사된 탄도미사일이 300여km를 비행한 후 동해상에 떨어졌으며, 우리 군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즉각 포착하고 추적·감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이번 도발이 한미 연합편대군 종합훈련이 실시되는 군산 공군기지 타격을 모의한 발사로 보인다고, 제원 분석 결과 600mm 초대형 방사포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23일에는 북한 조선중앙통신의 보도를 인용해 이번에 발사가 초대형 방사포인 KN-25에 핵모의전투부를 탑재하는 핵무기 운용절차 시험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핵반격가상전술훈련'의 일환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이번 훈련이 한미연합 편대군훈련 KFT를 겨냥한 것임을 분명히 했는데 이번에 발사된 방사포의 사거리가 300km로 평양에서 한미 연합훈련 장소인 군산 공군기지의 거리와 유사하다는 것이 그 증거라고 밝히며, 이번 발사가 한반도 내 핵 위협 수준을 끌어올리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23일 뉴스포커스에서는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이번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다각도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양 연구위원은 올해가 북한의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의 4년차에 해당한다고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이 되는 내년에 맞춰 북한이 대부분의 무기체계 개발을 올해 안에

끝내려 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탄도미사일이 아닌 초대형 방사포 도발을 지속해 나가고 있는 이유는 지난해부터 지속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무기 거래 때문으로 추정된다며, 북한이 보유한 탄도미사일을 러시아에 수출해 미사일의 숫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긴장감 고조를 위해 방사포를 대신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끝으로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가 끝났고, 올해 안에 감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는데 당장 핵실험을 하기 보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전후로 국제정세를 평가해 도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과거에 비춰볼 때 북한의 대남 도발은 대부분 그 목적과 의도가 명확했습니다. 이번 도발 역시 치밀한 계산하에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연합뉴스TV가 적시적인 보도에 분석을 덧붙여 사안을 심도있게 다뤘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방문제 전문가를 패널로 초청해 이번 도발의 배경과 전망을 살펴봄으로써 시청자들이 북한의 군사적 행동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는 점이 눈에 띄는 보도였습니다.

당분간 북한의 도발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바 연합뉴스TV가 앞으로도 깊이 있는 분석과 함께 북한 관련 보도를 다뤄주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연합뉴스TV는 지난 23일 저녁, 러시아의 군사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했다고 단독보도했습니다. 북한의 방사포 도발과 러시아 대표단의 방북이 연계되어 있다는 분석도 함께 전했는데요, 관련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TV는 북한이 600mm 초대형 방사포를 쏜 22일, 군 당국자로 추정되는 러시아 대표단이 북한을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정부고위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이번 러시아 대표단의 방문은 “비밀 방북으로 군사협력 행보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도 도발 목적이 아닌, 대표단 참관하에 이뤄진 선전용일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특히 통상적으로 이른 새벽 시간에 감행되던 도발이 이번에는 오후 3시에 있었다는 것에 비춰볼 때 러시아 대표단에게 북한 무기체계를 보여주며 우수성을 과시하기 위한 의도가 엿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끝으로 외교 소식통의 발언을 통해 이번 도발이 "북한 무기에 대한 러시아의 무너진 신뢰를 만회하려는 노력"이라며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대한 "추가 무기 판매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밀착은 우리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연합뉴스TV가 단독보도를 통해 이번 북한의 도발과 북러간 연대 가능성을 연계해 보도함으로써 시청자들이 해당 이슈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고 평가됩니다.

다만 북한의 도발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방사포와 탄도미사일을 번갈아 가며 사용해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다소 혼란스러웠다고 생각됩니다.

비록 보도 중간에 우리 합참이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를 탄도미사일로 부른다는 설명을 했지만 미사일과 방사포의 차이점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시청자들의 경우 다르게 해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청자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의 사용을 통일했다면 더 좋은 보도가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유롭게 북한 내부를 활보하는 외국인 여성이 온라인 상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조이’라는 이름의 영국인 여성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북한에서의 일상 게시물을 다수 올려 관심을 모았는데요, 일각에서는 북한 당국이 홍보를 위해 의도적으로 고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을 전한 <현장의 재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조이디스커버즈NK, 한국어로 북한을 탐험하는 조이라는 이름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소유한 영국인 여성은 4만명이 넘는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으며, 계정에 올라온 700여개의 게시물 대부분이 북한 주민과 장소를 담은 사진과 동영상입니다. 북한 주민과 탁구를 치는 모습, 북한 국적의 고려항공 비행기에 탑승하는 모습, 비무장지대 군인과 자연스럽게 인터뷰하는 모습 등 북한 당국의 허가가 없으면 촬영 및 게시가 불가능한 콘텐츠들입니다. 특히 영상에서는 북한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만을 하고 있어 북한이 체제 선전을 위해 고용한 인플루언서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는 빅토리아라는 이름의 러시아 국적의 여성 인플루언서의 소셜미디어 계정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8만 여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빅토리아는 지난해 11월부터 북한에서 거주하며 마시령 스키장, 대형 쇼펄물, 지하철 탑승 등의 영상을 게시했는데 앞서 언급한 영국인 여성 조이와 마찬가지로 북한이 선전용으로 고용한 인플루언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이 다양한 계정을 활용해 체제 선전을 시도해 왔지만 사상성 등의 이유로 번번이 차단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이 현재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고용해 체제에 대한 홍보를 우회적으로 하고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온라인 상의 화제성 이슈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영상을 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단순한 이슈 언급을 넘어 인플루언서의 활동에 대한 분석과 의도를 함께 다뤘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소셜미디어 상의 게시물에 기반해 언론보도가 이어지는 소셜미디어 저널리즘 현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취재를 통한 전통적인 보도방식에서 벗어나 유명 인사의 게시물에 기반해 신속하게 뉴스를 전달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보도 전문 채널인 연합뉴스TV에서도 이러한 형태의 보도가 보다 폭 넓게 활용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딱딱한 뉴스 형식에서 벗어나 가볍게 이슈 또는 트렌드를 분석함으로써 시청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현장의 재구성>과 같은 프로그램이 더 늘어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대표 방송스틸컷

일시/장면설명	일시/장면설명
<p>2024년 4월 7일 04시/ 임윤주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p>  <p>임윤주 시청자평가원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연구원</p>	<p>2024년 4월 14일 04시/ 김홍태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p>  <p>김홍태 시청자평가원 대한변협 권역위원장 / 변호사</p>
일시/장면설명	일시/장면설명
<p>2024년 4월 21일 04시/ 안지연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p>  <p>안지연 시청자평가원 인천대학교 기초교육원</p>	<p>2024년 4월 28일 04시/ 박세진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p>  <p>박세진 시청자평가원 영남대학교 경영사학부(DK)학과 교수</p>